

1장

양리는 현관을 열고 들어와 환영하듯 앞으로 손을 뻗고, 그 뒤로 여자들이 까르르 웃으며 동시에 들어온다. 사방으로 여자들이 퍼지면서 양리는 소파에 앉아 여자들을 지켜본다. 한 여자는 양리에게 안대를 가져와 씌우고 양리는 눈이 가린 채로 숨바꼭질을 한다. 한 여자는 테이블에 술을 가져와 서로 나눠 마신다. 양리 소리 지르며 주변의 여자들을 껴안는다. 안전.

어두운 조명, 양리는 소파에 누워 반쯤 옷을 풀어헤치고 자고 있다. 풀어 헤친 셔츠 너머로는 립스틱자국과 집안에는 여자 스타킹, 속옷,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다.

어둠 속에서 전화벨소리가 울리고 양리가 신음을 내며 서서히 몸을 일으키자 무대 조명은 형광등이 켜지듯 밝게 켜진다.

양리 :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또 뭐가.. 고모님이 돌아 가신지가 언젠데 자꾸 고모님 얘기가 네가 다 알아서 한다며 아, 그냥 내 싸인 그거 네가 대신 해 뭐가 어렵다고 자꾸 사인을 해야 된대 다 늙은 할망구가 자기 새끼 없다고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어휴 알겠어. 가지고 와 어차피 있다가 도도도 온다 그랬으니까 둘이 같이 와 (눈앞에 놓인 컵으로 물을 마시다 뱉는다) 야 물도 없다. 물 좀 사와.

갑자기 끊긴 전화를 째려보다가 방에 놓인 스타킹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목에 감고는 감촉을 느낀다.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리자마자 도도는 컴퓨터 책상에 앉아 이어폰을 꽂은 채 게임을 시작한다.

양리 : 아 씨 집 앞이면 뭐 하러 전화를 해! 그냥 들어오면 되지!

노베르 : (밝게 웃으며) 친구야 갑자기 남의 집에 쳐들어가면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란다 친구를 범죄자로 만들 생각이니? 그러지마~ 요즘 내가 얼마나 살맛나는데

양리 : 뭐 살맛이야

목에 건 스타킹을 투덜거리며 정리한다.

노베르 : (밝게 웃으며) 응 드디어 그저께 마누라한테 맞았거든 이제 폭행죄도 더해지고 합의금도 받아서 이혼할 수 있게 됐어 보여줄까? 갈비뼈 쪽이긴 한데 아직 멍은 있어

양리 : ...무섭다.. 난 진짜 결혼 안할 거야

노베르 : 아냐 친구야 나는 삶의 소중함을 알았어. 나 어제는 처음 내 통장도 만들었단다.

양리 : ..나 진짜 결혼 안할 거야

도도는 점차 집중하며 발을 의자에 올리고 의자에 무릎 꿇고 키보드를 켜 채 일어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지 흥분하여 키보드를 내려친다.

도도 : 저 티모새끼 잡아서 내가 언젠간 진짜 다 찢어버릴 거야!!

양리 : 재는 왜 우리 집 와서 저러고 있냐.

노베르 : 이번에 어린이 극단에서 탈 쓰고 공연한 거 급여 안 들어와서 월세 못 내가지고 쫓겨났대, 어휴 현실도 못하는 브론즈 새끼가 어디서 버릇없이 소리를 뽁뽁 질러 지르긴.

도도 : (컴퓨터 화면을 보며)하.. 진짜.. 애들아 너희에겐 궁이란 게 있단다!!

양리는 멍하게 도도를 바라보다 뭔가 떠오른 듯이 노베르를 바라본다.

양리 : 근데 전화로 했던 얘기가 뭐냐 고모님 주식? 뭐 싸인하라고?

노베르 : 응 유품 정리하는데 고모님이 주식 사두 신게 좀 있더라고 이거 수령 하려면 싸인 좀 해야 돼서 그냥 여기다 하면 돼 (품에서 종이를 꺼내 건넨다)

양리 : 무슨 주식인데? (종이를 받는다) 코카콜라?

노베르 : 진짜 옛날에 사두신 모양이더라고 고모님도 어디서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거의 코카콜라 회사 설립되자마자 사두신 것 같아

양리 : 이거 얼마쯤 하는데?

노베르 : 글썄.. 한 10주..? 사신건가 3백만원 정도 나갈 거야

양리 : 그럼 그냥 재 주지 뭐 (도도를 툭 끝으로 가리킨다)

노베르 : 그 입술 주인한테 줘야 되는 거 아냐? (웃으며 품을 가리킨다)

양리는 순간 놀라지만 이내 머쓱한 듯 옷을 다시 갖춰 입는다.

양리 : 뭘 누군지도 모르는데 주냐 하루 잘 놀았음 된 거지

노베르 : 열~ 나쁜 남자~ 나도 그런 거 할래 어떻게 하면 돼? 막 욕하고 그런 건가

도도 : 이런 개 시베리아 호로 잡것이 뎡뎡이했!!! 니네 엄마 만수무강!!

양리 : 저런 것만 안하면 되겠지

도도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탁자에 놓인 컵 안의 음료를 마신 뒤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양리 : 뭐 여기다 싸인 하라고? 근데 이거 10주라고 읽는 거 아닌 거 같은데 땀 거야

노베르 : 어? 아 하하 내가 각주를 잘못 읽었네 이게 숫자다

앙리, 노베르, 깜짝 놀라 종이를 붙잡고 다시 읽는다.

앙리, 노베르 : 만??

눈을 마주치며

앙리, 노베르 : 300억????

앙리 : (더듬으며) 진짜 이거 10,000주 맞아? 사.. 삼백억 맞아?

노베르 : (더듬으며) 어.. 응.. 사..삼백억 이야.. 야, 이거 꿈이냐? 이거 진짜냐?

도도 : 그래 나 진짜 대기업 다닌다고 이 초딩새끼야!!

앙리와 노베르는 서로 각지를 끼고 발을 동동 구르며 기쁨을 표시한다 핀 조명이 뜨고 앙리는 무대 중앙으로 나와 기도를 올린다.

앙리 : 고모님, 감사합니다. 고모님은요 제 인생 최고의 고모님이었어요. 고모님이 아니셨다면 전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꺼예요 아뇨 그 뜻이 아니라 전 오늘부로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고모님 사랑합니다 .. 응애

핀 조명이 꺼지고 평 조명으로 돌아온다

노베르 : 야 근데 이거 조건 있다

앙리 : 응애?

노베르 : 너 결혼해야 돼

앙리 : 뭔 소리야

노베르 : 여길 봐 ‘단, 위 유산을 모두 넘기는 조건으로 사랑하는 나의 조카 ‘앙리’가 신부를 맞이 하여 1년간의 결혼생활을 무사히 마칠 것’

앙리 : (헛웃음) 그거야 뭐 니가 알아서 해줘~ 고모님이 너한테 유산처리과정 다 맡기셨잖아 알잖니 친구야?

노베르 : 그래 그렇게 되면 야 참 좋지.. 근데 여길봐. 이미 감시원을 고용해 두신 모양이야 대금도 다 지불 하셨고 망했네?

앙리 :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결혼 그거 하나 땀에 300억을 날린다는 게 말이 되냐? 어? 뭐? 하지 결혼 (전화기를 들며) 제인? 소피아? 루나?

노베르 : 그래 너도 나랑 같이 유부남이나 되자 결혼도 나쁘지 않아.

이때 무대 외곽에서 엘자가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채로 캐리어를 끌며 등장한다.

노베르 : 자 봐봐 재무 관리도 마누라가 다 해줘, 해외여행도 혼자 잘 다녀줘. 아마 지금쯤이면 자기 여권이랑 내 월급 통장 보면서 히히덕대고 있을걸? 어휴 난 지금까지 살면서 내 월급이 얼마인지 어제 처음 알았네. 저 나쁜 년.

엘자는 품속에서 여권과 통장을 꺼내어 뽀뽀를 한 채 흥겹게 무대 뒤로 사라진다.

앙리 : 야!!!! 그럼 결혼하면 안 되지! 300억인데! 300억을 뭣도 모르는 기집애들한테 다 날릴 일 있어?

노베르 : 에이 1년인데 원일 있겠어? 날 봐, 3년 살았는데 (오열)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앙리 : 조용히 좀 해봐!

노베르 : (오열) 나는 변호사면 돈 좀 만질줄 알았는데 하나도 아니었어. 나는 어제 통장도 처음 만들어 보고 그동안 나는 용돈 타 쓰고 내 월급도 모르고, 야 너는 결혼 하지 마 결혼 너무 힘들어

앙리 : (노베르의 역살을 잡고) 니가 결혼해야 300억 받을 수 있다며! 아씨.. 어찌지

도도의 전화기가 울린다.

도도 : 네, 아.. 아노 금방 짐 뺄게요.. 아노 둘 데가 없어서.. 지금 가지러 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쓰레기라뇨..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네 끊겠습니다.

노베르 : (홀쩍이며) 왜 그래 집주인이야?

도도 : 어.. 자꾸 보면 뭐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제 가서 짐 치워야지 뭐 어디 고시원이라도 가던가.

노베르 : 앙리야

앙리 : 왜

노베르 : (홀쩍) 너 도도랑 결혼해라

앙리 : 너 자꾸 시끄럽게 굴래? 도도랑 결혼을 왜 해!!

노베르는 일어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금 생각에 잠긴다.

노베르 : 아냐 아냐, 생각해 봤는데 도도랑 결혼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앙리 : 니가 이제 미쳐 돌아가는 구나 아 꺼져!! 그만 헛소리 할거면.

노베르 : (앙리의 팔을 붙잡고) 야야 아냐 잘 생각해봐 어차피 도도도 갈데없고, 너도 모르는 기

지배들한테 돈얘기 하느니 우리끼리 300억 얘기 나오는 게 낫지, 그리고 딱 1년이야, 1년만 버티면 300억이라니깐? 야 하루에 8천만 원씩 번다고 생각해봐 감시원도 매일같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너도 니인생 계속 즐기고, 도도도 도도 나름대로 집에서 지내기만 하는데 하루에 8천만 원, 1년이면 300억이라고!!

양리 : 야 그래도 어떻게.. 도도랑 결혼을 하나..

노베르 : 하루에 8천만 원이면, 1시간엔 3백만 원 정도네 이야 시급이 삼백이야?

양리 : 켠 남자잖아! 남자랑 어떻게 결혼을 해!

노베르 : 잘봐! 여긴 '신부를 맞이하여 1년간의 결혼생활을 무사히 마칠 것'이라고만 되어있지 아무데도 니가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던가, 신부가 여자여야 한단 말은 안 나와 있다고!

양리 : (노베르를 쳐다보며) 이 소름끼치는 새끼..

양리가 계속 결정을 못 내리자 노베르는 도도에게 다가가 속삭인다.

노베르 : 도도야 시급 3백만 원짜리 있는데 할래?

도도 : 개소리 하지 마

노베르 : 아냐 아냐, 너 이렇게 컴퓨터 하면서 양리네서 살면 한 시간에 삼백만원씩 벌수 있어

도도 : 너 다단계 하나?

노베르 : 아니 그냥 양리랑 1년 동안 결혼하면 돼

도도는 노베르를 빤히 쳐다보다 고개를 돌린다.

도도 : 싫어

노베르 : 왜? 야 너 이런 알바 없다? 한 시간에 삼백이면 하루에 8천만 원, 1년이면 300억이야

도도 : 아 안 돼 나 삼대독자란 말이야 미쳤냐 삼대독자가 대뜸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고

노베르 : 너네 아버지한테 말씀 안드리고 딱 1년만 하면 되지 너 어차피 갈 데도 없잖아 와 나 같으면 진작한다. 이게 웬 떡이야 한 시간에 삼백이면 1분에 5만원이네 대박 야 그러지 말고 양리야 나랑 결혼하자 내가 잘해줄게 (셔츠한쪽을 내리며 윈크한다) 어때?

양리 : (무시하며) 하.. 진짜.. 삼백 억인데..

노베르의 계속된 유혹에 양리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굳은 결심으로 고개를 든 뒤 도도에게 다가간다.

양리 : 야 도도야..

도도 : 왜

양리 : (더듬으며) 나..랑 결혼 안할래?

노베르 : (박장대소) 그래 니가 드디어 현실을 아는구나! 3백억이 우스운 돈이 아니라니깐

도도 : 너네 쌍으로 미쳤냐? 더럽게 왜이래 진짜

양리 : 야! 누가 니가 좋아서 그런대? 1년만 버티면 3백억이라잖아! 야 너 3백억이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어, 못해도 한 달 월급 땀에 맘 졸이면서 살진 않아도 된다고

도도 : 아 싫어 꺼져

노베르 : (계속해서 웃으며) 그래, 프리포즈를 그딴 식으로 하는 남자가 어딴냐? 무릎이라도 꿇고 해야지

양리 : (한숨을 쉰 뒤, 어금니를 깨물고 무릎을 꿇는다) 도도야..

노베르 : (뺨터진다) 한쪽무릎은 세워야지!

양리 : (부들대며 한쪽무릎을 세운다) 도도야, 너 진짜 1년만 여기서 컴퓨터만 하고 있으면 3백억이야.. 너 집안일 하나도 안 시켜 너 사생활 터치 하나도 안할게 그냥 여기 있기만 하면 된다 니깐

도도 : 싫다고! 더럽다고! 그렇게 남자가 좋으면 노베르랑 결혼하지 왜 나한테 와서 헛소리야!

노베르 윙크한다.

양리 : 쯤 유부남이잖아! (일어나며 소리 질렀다가 다시금 무릎 꿇으며) 아니.. 도도야.. 아 맞다 년 배우잖아! 1년 동안 정기공연 올린다고 생각해봐, 1년에 3백억 개런티 받고 응? 와 진짜 이 정도면 한류스타 급인데

도도 : (살짝 솔깃해 하며 웃는다) 아부해봤자 먹힐 거 같냐

양리 : 야 됐어, 하지 마 나도 몰라 이젠

노베르 : 내가 빨리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냐?

양리와 노베르가 서로 얘기하며 궁리를 찾는다.

도도 : (헛기침을 하며) 근데 1년에 3백억이면 김수현급 정도 되나..?

노베르 : 어휴 김수현은 이제 끝물 다됐지 개가 이제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니 개는 이제 벌어놓은 거 쪼개쓰는 거고 우리 도도는 앞날 창창하게 벌면 되는 거고

양리 : 와 장난 아니다 도도야! 응? 결혼 하는 연기 1년만 하면 되는데..

도도 : 아니 뭐.. 굳이 그런걸 연기라고 할게 있냐?

도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리를 껴안고 이마키스를 한다.

도도 : 나같은 연기자는 이렇게 딱 숏이 들어오면 몰입이 딱 되는 거지

양리 : 와 나 진짤줄 알았잖아 진짜 멋있다 도도야

노베르 : 그럼! 결혼 하는 거다? 식당 예약한다?

도도 : 그래 새끼야 우리 자기 기다리니까 당장 예약해라!

2장

조명 들어오면 도도는 앞치마를 맨채 옆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다. 침실쪽 문이 열리고 양리가 나와 핸드폰게임을 하며 소파에 눕는다. 양리가 핸드폰게임을 하는 것을 도도는 죽일 듯 노력하고 거칠게 다리를 내려놓으며 신경질 적으로 먼지떨이를 이용해 소파의 먼지를 툴다. 갑자기 양리의 핸드폰이 울린다.

양리 : (전화를 받으며) 네 아버지 하느님의 축복 양리에요 네, 교회 잘.. 다니고 있죠. 아뇨 무슨 결혼정보 업체에 등록까지 해요 제 나이에.. 괜찮아요. 아뇨 아뇨 오시지 마세요! 집 더러워요 저 청소도 안 해요. 하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쉰다)

다시 핸드폰 게임을 시작하는 양리를 보고 도도는 어이없는 눈으로 쳐다본다.

도도 : 너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나?

양리 : 왜 그래

도도 :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양리 :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도도 : 집이 더러워?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는 나는 우스워 보이냐? 청소? 안하시겠지. 내가 다 하니까, 너 결혼만 하면 나 집안일 하나도 안시킨다며, 근데 이거냐? 내가 집에만 있으니까 우습게 보이냐고

양리 : 야 그게 아니라... 미안해..

도도 : 뭐가 미안한데

양리 : 너 집안일 시킨거...

도도 : 봐봐 이거 하나도 모르네 너 사실 뭐가 미안한 지도 모르지?

양리 : 아냐.. 내가 다 잘못했어

도도 : 됐어 넌 항상 그딴 식이야, 너 왜 나갈 때 음식물 쓰레기 한번도 안버리냐? 내가 일부러 현관에 내놓기 까지 해봤는데

양리 : 아니.. 까먹어서.. 미안해

도도 : 너 미안하단 소리 하지도 마 듣기 싫어

앙리 : 응.. 안할게

도도는 입술을 주먹거리다 쪼그려 앉아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한다

도도 : (울며) 너 진짜 쓰레기다. 말하지 말란다고 진짜 안하냐? 너 이렇거면 나랑 결혼 왜 했어! 왜 했냐고!

앙리 : 아니.. 3백억..

도도 : (말을 끊으며)너 그리고 결혼정보업체? 그 애긴 또 뭐야, 나랑 더 살기 싫은가 보다? 어? 이혼해줘?

앙리 : 아니지 도도야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왜 너랑 살기 싫겠어...

앙리가 찢절매는 와중에 현관에서는 큰 노크소리가 들린다.

노베르 : 감시원입니다 댁에 계세요?

앙리와 도도는 깜짝 놀라 집에 있던 액자도 게이사진으로 바꾸고 상자 속에 있던 온갖 게이용품
을 꺼내어 집안 곳곳에 놓는다. 앙리는 도도를 공주님 안기로 안는다.

앙리, 도도 : 어서 오세용

노베르 : 네 저는 감시원입니다. (뺨터지며) 아하하 니네 진짜 빠르다

도도는 앙리를 내던지고 노베르를 밟기 시작한다. 노베르는 웃는걸 멈추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비
웃는다. 내던져진 앙리도 다시 일어나서 노베르를 밟는다.

노베르 : 너무 재밌다.. 진짜 난 여기만 오면 너무 즐거워

도도 : 꺼져!! 좀 오지마 짜증나니까

노베르 : 어째 신혼생활은 잘 지내고 계신가? 이거이거 새댁이 왜이렇게 앙칼져 그래, (도도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직 애는 안 들어섰고?

앙리, 도도 : 닥치라고!!

노베르 : 역시 부부는 일심동체 라더니만.. 옛말 하나도 틀린게 없어요. 도도야, 남자는 허리다.

앙리 : 꺼져!! 왜 왔어!!

노베르 : 선물을 주러 왔지요~ 이건 홍석천씨 싸인이고, 이건 훌륭한 게이란? 책이야 집에 데코
해놔, 그리고 저번에 인터뷰 했던 잡지 나왔더라 ‘국내 최초의 동성 결혼식’ ‘앙리와 도도 그들의
사랑’ 카 대단해 대단해

앙리 : 야! 내가 그니까 이거 안한다 그랬지! 누가 보면 어찌려고!

노베르 : 신고도 못하는데 이정돈 해야 결혼 증명이 되지, 괜찮아 이거 게이들밖에 안봐

도도 : (한숨쉬며) 그래.. 고맙다 잘 돌께

노베르 : 역시 아내는 이런 나긋나긋한 맛이 있어야 돼, (도도의 엉덩이를 친다) 일등 신붓감이네 그래, 엘자는 내 말에 한마디도 안져요 하여튼 그건 여자도 아냐

살짝 열린 문틈으로 엘자가 들어와 가슴께를 가린채로 앙리와 도도에게 인사하고, 노베르의 뒤에서 노베르의 말을 계속해서 듣는다.

노베르 : 야 전에 내가 엘자가 내 월급통장 가지고 히히덕 거릴꺼라 했잖아? 이제 그 월급 다 다른 계좌로 들어와서 갠 돈 이제 하나도 없다? 어휴 은행가서 얼마나 당황했었을까. 그 꼴을 봐야 했는데

앙리와 도도는 찢찢매며 고개를 숙이고 있고 엘자는 입속의 혀로 입안을 한번 훑은뒤, 품속에서 통장을 꺼내어 뒤로 던진다.

노베르 : 아무튼 진짜 도도랑 결혼한건 잘한거야 여자란 족속은 돈을 쥐봤자 괜히 엉덩이만 가 베풀이지

엘자는 노베르의 말이 끝나자 마자 뒤에서 노베르의 엉덩이를 걷어찬다.

노베르 : 뭐..뭐야!

엘자 : 나다 왜, 너 니 월급 다 어쨌어?

노베르 : 내.. 내 월급이니까 나한테 있지!

엘자 : 가장이 혼자 월급 쥐고 있는게 뭐 자랑이라고 소릴지르냐? 미쳤어? 너 그리고 요즘 뭐하는 짓이야? 내가 다봤어! 홍석천씨 만나서 싸인받고, 분홍색 곰돌이에다, 뭐? 훌륭한 게이란? 게이잡지? 너 게이냐?

노베르 : 무슨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릴 해!

엘자 : 그럼 니가 말이 되는 짓을 하고 다녀!!

노베르는 잠시 일어났다가 엘자의 호통에 다시 움츠러든다.

엘자 : 너 게이인거 밝혀지면 이거 이혼사유 아냐, 혼인 취소겠지, 오히려 내가 너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해버릴 거야

양리는 도도에게 귓속말을 한다.

양리 : 노베르 와이프가 더 소름끼치는 사람인거 같아..

도도 : (끄덕끄덕)

엘자 : (노베르에게) 너 게이야?

노베르 : 아.. 아냐!

엘자 : 그럼 이거 왜 사서 캐리어에 끌고 다니는지 빨리 말해

노베르 : 재.. 재... 재들이 게이야!

양리와 도도는 깜짝놀라 뒤로 한걸음 물러선다. 엘자는 표정을 풀지 않은 채로 양리와 도도에게 시선을 가져간 뒤 질문한다.

엘자 : 게이세요?

노베르 : 실례되게 그런 질문 하면 안돼! 결혼은 하셨지만..

엘자 : 결혼도 하셨어요?

노베르 : 아니 그렇게 실례되게 질문 하면 안된다니까! 여기 잡지 인터뷰도 하셨어..

엘자는 잡지를 몇 번 훑어보고 내려두고 밝은 얼굴로 둘을 쳐다본다.

엘자 : 어머어머 어떡해, 제가 너무 실례했네요. 진짜 두분이서 결혼하신거예요? 그동안 진짜 눈치 한번도 못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만나신거예요?

노베르 : 그래! 난 집들이 선물 가져온거라고!

엘자 : 당신은 좀 조용히 해! 어머 저 게이 처음봐요. 너무 신기하다. 전 게이는 좀 잘생기고 그럭저럭 알았죠 제가 쌍화점을 너무 재밌게 봐서 호호, 그나저나, 누가 여자 쪽이에요?

양리와 도도는 서로 긴가민가 하며 상대를 가르킨다.

엘자 : 그럼.. 누가 남자 쪽?

양리와 도도는 각자 당당히 자신을 가르킨다.

노베르 : 질문 좀 이상한거 하지만, 게이가 왜 다 잘생겼냐 그냥 사람처럼 생긴거지, 그리고 여자쪽 남자쪽이 어딴거 그냥 재들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거라고.

엘자 : (무시하며) 호호 한참 신혼이신가 보다, 저희는 이혼할건데.

앙리 : 아.. 예 들었어요..

엘자 : 이런거 보면 세상살이 참 우습지 않아요? 한쪽은 결혼 한쪽은 이혼 호호 저흰 그럼 이만 가볼게요 아무쪼록 이혼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노베르 : 괜히 와가지고 쪽팔리게..

노베르는 손 인사를 한 뒤 엘자에게 발로 한 대 더 얻어맞고 멍기적 대며 현관문을 나선다. 노베르가 현관을 떠나는 것을 보고 앙리와 도도는 눈이 마주치자 머쓱해지며 쇼파에 앉는다.

앙리 : 노베르도 많이 힘들겠다..

도도 : 뭐.. 세상 사는게 다 그렇지..

앙리는 은글슬쩍 다가와 도도의 손을 양손으로 잡고 토닥인다.

앙리 : 요즘 많이 힘들었어?

도도 : 뻘어 징그럽게 뭐하는 거야

앙리 : 에이 미안하니까 그렇지, 어이쿠 우리 도도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 이거 주부습진 아냐?

도도 : 아냐 뭐.. 이따 바세린 바르면 금방 나아

앙리 : 도도야.. 미안해.. 나같은 거랑 결혼해서 고생이 많아.. 우리 외식할까? 오늘은 푹 쉬자

도도 : (미소를 지으며) 외식은 무슨.. 평소에나 잘해

앙리 : 외식하는거다? 나 웃입고 온다? 기다려

앙리는 침실로 떠나고 도도는 배시시 웃으며 머리를 한번 정돈한다. 현관 쪽에서 벨소리가 크게 울린다. 도도는 화들짝 놀란다.

도도 : 노베르..? 노베르야?

대답 없이 계속해서 초인종 소리만 들리는 문에 도도는 겁에 질려 침실 문을 두들긴다.

도도 : 앙리야 어떡해! 진짜 감시원 왔나봐!

앙리 : 뭐? 진짜? 아 알겠어 일단 소품 좀 놓고 있어봐 나 옷 갈아입고 나갈게

도도는 집 에놓인 게이잡지를 펼쳐두고 앞치마를 벗어 가슴에 털을 붙인다. 선글라스를 끼고 분홍색 목도리를 두른다. 나머지 소품을 재정비한 뒤 현관문을 열어 나간다.

현관문이 열리자 의아한 표정으로 에드몽이 들어온다. 도도는 가슴께를 가리고 인사한다.

도도 : 안녕하세요 호호

에드몽 : 네.. 누구..?

도도 : 저 앙리씨 부인인 도도라고 합니다. (선글라스를 벗고 에드몽에게 윙크한다)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참 미남이시네요.

에드몽 : 앙리 부인이라구요? 실례지만.. 남자..분이신거 같은데..

도도 : 네 호호 남자지만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고 거리낄 것 없으니까요 (침실문을 내리친다) 그렇지 자기야?

앙리 : 그렇지! 우린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난 자기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

도도 : 나도 자기야! 여자 따위 다 필요없어! 난 자기의 그.. 그.. 남자다운 목젖이 좋아! 그리고.. 그리고..

할말이 없고 어색해 지자 도도는 에드몽을 끌고 나와서 잡지를 보여준다.

도도 : 여기 우리가 사랑한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드몽 : 이.. 이게 무슨..!

도도 : 여기 보시면 우리 자기 너무 귀엽게 나왔죠? 잘생겼죠?

앙리 : 자기야!? 우리 잡지 보여드린거야??

도도 : 응 당연하지! 우리의 사랑을 낱알이 보여드려야 우리의 사랑을 더 확실히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자기야 사랑해!

앙리 : 그..그래 자기야 사랑해! 우린 평생 사랑하면서 살거야!

도도 : 그..그렇지! 남자 너무 좋아! 우린 게이인 게 행복해!

앙리 : 맞아 응 그렇지..

도도 : (눈치 주며 침실문을 다시 내리친다) 자기야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

앙리 : 다른것도 보여드리는게 어떨까!

도도는 에드몽에게 다른 물건들을 꺼내어 보여준다.

도도 : 이건 저희의 빛과 소금이시자 롤모델이신 홍석천님의 싸인이구요, 이거는 훌륭한 게이가 되기 위해서 아니 일단 우리는 게이긴 한데 더 좋은 게이가 되기 위해서 산 책이구요, 어쨌든 저희는 굉장히 사랑하고 있고, 결혼 생활에 문제도 없구요, 1년이고 10년이고 사랑할 거랍니다!

에드몽 : 그러니까.. 두분이서는..

앙리,도도 : 우리 서로 사랑해요!

앙리 : 자기야 나 나갈게!

도도 : 응 빨리 와서 (심호흡) 키스해줘!

화려한 나이트 가운을 입은 양리가 나와서 도도에게 억지로 키스하려하다 에드몽을 본다.

양리 : 아빠

도도 : 우웅 아빠 인게 무슨 상관이야 빨리 키스해... 아버지님

패닉에 질린 에드몽은 목에걸려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꼭 쥔 채 무대 중앙으로 나가 핀 조명을 받으며 무릎을 꿇는다.

에드몽 :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양리 : 아빠 아니야!

에드몽 : 조용히 하거라! (흐느킨다) 내가..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몸쓸 짓을 하였구나.. 내가 그동안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추스리고) 아버지,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어찌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서 이리도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말입니까. 이제 우리 모두 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진실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도 : 아버지.. 저 오해합니다.

에드몽 : 조용히 하거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양리 : 아빠 진짜 아니라니까!! (에드몽을 일으킨다)

에드몽 : 아들아... 아빠도 게이야

양리 : 뭐?

에드몽 : 아빠도 게이라구, 어휴 진짜 우리집안은 대대로 게이일 수밖에 없나봐 어쩔 아빠도 이렇게 깜빡 속인 채 장가를 갈수가 있니. 머스매 진짜 못됐어~

도도와 양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에드몽만 바라본다.

에드몽 : 그동안 나두 숨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어휴 니들은 생각도 못 할거다. 잘됐다. 일루 와바 머스매들아 우리 애기좀 하자.

에드몽의 손에 질질 끌려와 도도와 양리는 쇼파에 앉는다.

에드몽 : 어쩔 우리 며늘아가는 선이 곱네, 그래 넌 언제부터였니? 어머 나는 결혼하고 알았잖니. 나이는? 하는 일은?

도도 : 아.. 저..

에드몽 : 그래 우리 세계에선 솔직히 그런 건 상관이지 나 아까 니들이 하는말 듣고 감동했잖아 사랑! 그래 그것만 있으면 되지 솔직히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있지 뭐가 있겠니 사랑이 쥔 중요한 거 아니겠어?

도도 : 그렇죠..

에드몽 : 어머 어머 우리 며늘아가 귀여운 것좀 봐 (볼을 꼬집는다) 아주 깨물어주고 싶어

앙리 : 저 아빠 근데

에드몽 : (말을 끊으며) 내가 우리 앙리가 이 여자 저 여자 쏘시고 다닐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저러다 어떤 사람한테 정착을 하려나 하고 말이야, 근데 우리.. 이름이 뭐지?

도도 : 도도입니다.

에드몽 : 어쩜 이름도 이렇게 귀여워 (허벅지를 쓰다듬자 도도는 바싹 긴장한다)우리 도도씨한테 앙리가 딱 정착을 해주니까 나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지네. 그냥, 이렇게 아니라 우리 한잔씩 해야하는거 아닐까? 우리 며느리도 처음 보구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회포 좀 풀자구

에드몽이 일어나서 술을 찾자 앙리는 결심이 선 듯 얘기한다.

앙리 : 아빠...!! 우리 결혼한거 아냐

에드몽 : 무슨 소리니?

도도는 다급하게 손으로 300을 만들어 앙리를 말린다.

도도 : 결혼..이라는 관습에 얽매인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다구요! 하하 저희는 결혼이란 틀에 박히는 걸 싫어해서

에드몽 : 말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해.. 애 진짜 결혼.. 아니아니 사랑하길 잘했다 호호

앙리 : 어.. 응.. 사랑하면 다 그렇지

에드몽 : 그래그래 애 건배나 할까? 게이를 위하여!

앙리, 도도 : 위하여!

(암전)

3장

은은한 파란빛이나 붉은빛 조명, 끈적한 음악이 울려 퍼지며 (과속스캔들에서 차태현이 유치원 선생?맞이하면서 흠시어터 튼 음악..?) 술취한 척 하는 앙리가 제시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온다. 앙리는 취한척이지만 거의 제대로 걷고 있고 걸으면서 머리카락이나 입새를 정돈하는 등 관객에게는 술취한 척이라는 모션을 제대로 취해준다. 제시는 공공대며 앙리를 쇼파로 옮겨서 앙리를 쇼파에 던진뒤 같이 앉는다.

제시 : 어휴, 괜찮아요? 많이 취했어요?

양리 : 후.. 취한다 제시야..

양리는 혀가 꼬이며 제시를 껴안으려 하자 제시는 양리의 목젖을 잡고 간단히 제압한다. 양리는 숨이 막혀 온다.

제시 : 오빠도 참, 부끄럽게 뭐하시는거예요. 결혼 전엔 절대 안돼요

양리 : (술 취한 연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지금이 몇 년돈데 그런 소릴 해.. 오늘 우리 백일 이잖아.. (다급하게) 너 그러다 나 바람 피면 어떡할래? 어? 나중에 결혼할 텐데 지금이나 그때 나, 어? 너 나 안 사랑해?

제시 : 에이 사랑하죠~ 그것도 엄청(애교를 부리며 양리 품에 안긴다. 양리는 제시를 껴안는다) 오빠 근데 이렇게 늦었는데 나 오빠 집에 들어와도 돼요?

양리 : 괜찮아 나 자취하잖아

제시 : (안긴 품에서 나오며) 아~ 오빠 자가예요? 전세예요? 요즘은 투자 다 부동산으로 하던데, 오빠 근처 보니까 역세권인거 같은데 집값이 얼마쯤 돼요?

양리 : 글썄..? 잘 모르겠는데.. (당황하며) 왜 그런걸 묻고 그래...

제시 : (얼버무린다) 아니 우리 부모님도 이번에 이사하시는데.. 제가 집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오빠가 저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잘 알지 않을까요? (울먹인다) 진짜 우리 엄마 아빠 고생만 너무 하시고..

제시가 울먹이자 양리는 당황하며 제시의 손을 잡는다.

양리 : 너 진짜 착해도 너무 착하다.. 너 이러다 다른 놈들한테 걸리면 큰일 나

제시 : 오빠가 평생 제 옆에 있을꺼니까 괜찮죠~ 이런 모습 보여주는거 너무 부끄럽다. (손으로 뺨을 감싼다.) 오빠 나 너무 추하죠

양리 : 추하긴 뭐가 추해, 나 너처럼 이쁘고 착한애 못봤어

제시 : 아니, (국어책 읽듯) 시부모님께 잘해드리거나 결혼해서도 맞벌이 하거나 더치페이 하는 건 당연한거 아니겠어요?

양리 : 넌 진짜 다른 여자애들이랑은 다른거 같아

제시 : 오빠도 참, 이런건 당연한거죠. 오빠 근데 저건 뭐예요? 진짜 금이에요? 요즘 금 시세가 어떻더라.. 아 그러고 보니까 오빠 통장 몇 개나 돼요?

양리 : 응? 잘 모르겠는데..

제시 : 오빠 그러면 안돼요 이제부터라도 재산관리 잘 해서.. 아! (적극적으로) 제가 관리해 드릴

까요?

양리 : 아니 뭐 그럴거 까진 없는데..

제시 : 오빠도 다른 남자랑 똑같구나.. 난 그냥 오빠랑 평생 행복하려고 그런건데 오빠는 날 돈 만 밝히는 여자애라고 오해 하고 (홀쩍인다)

양리 : 그런 오해 안해, 사랑해 제시야 내 통장 니가 다 가지고 있어도 돼

제시는 밝게 웃으며 일어난다.

제시 : (다급하게) 오빠 그러면 지금 오빠 통장 꺼내서 제 가방에 넣어둘게요? 까먹으면 안되니까?

양리 : 어.. 응 침실 서랍에 있어

제시는 소녀처럼 폴짝폴짝 뛰며 침실문을 연다. 침실문을 열자마자 도끼눈이 되어있는 도도와 마주친다. 도도는 동물 마스크 팩을 쓰고 있다. 제시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른다.

제시 : 깽!!

도도 : 너 누구야

양리 : 도도야!! (더듬으며) 아직 안잤어?

도도 : 너 누구냐고!

양리 : 왜 그래 손님한테 (제시에게) 괜찮아? 많이 놀랬어?

도도 : 니가 이제 미쳐가지고 집에 외간 여자를 들여? 어? 당장 도장 찍을 준비나 해!

양리 : 도장은 무슨 도장이야!! (귓속말을 하며) 한번만 봐줘 이번 한번만 넘어가줘

도도 : 넘어가?? 나 뒷목잡고 넘어가는 꼴 먼저 볼래? (두손에 얼굴을 묻고 앉은뒤 오열한다)

내가 저딴 자식을 믿고 살림을 차렸네.. 아이고 동네사람들

양리 : 야 진짜! (귓속말을 하며) 너 300억 다 줄게 돈 다 필요없어 진짜 제시랑은 헤어지기 싫어

도도 : (계속 울며) 내가 이딴 취급 받으려고 내가 저놈 팬티를 손빨래도 해줬네 그래..

제시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쇼파에 기대서 일어난다.

제시 : 저.. 누구세요?

양리는 제시와 도도 사이에 서서 제시를 바라본채 대사를 친다.

양리 : 어.. 그니까.. 도도라고 먼.. 사촌동생이야! 한동안 집에 와있게 됐는데 내가 아직 말을 못 해줬네

도도 : 내가 저놈 사촌동생이네 이제, 내가 저놈 땀에 바친 세월이 얼마데

양리 도도를 바라보며

양리 :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제발제발제발 (손으로 비는 시늉을 한다)

제시 : 근데 방금 좀 이상한 애길 들은거 같은데..

양리 : (고민하며) 어.. 음.. 동생이 사실.. 많이 아파요!

도도는 아프단 소릴 듣자마자 정색한 채 고개를 든다. 손가락으로 자신, 그리고 머리에 원을 그리며 미쳤냐는 의사를 표한다. 양리는 300억이라는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도도에게 어필한다 도도는 한숨을 쉬채 자리에서 일어난다.

도도 : (어린척 하는 목소리) 엄마야?

양리 :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응 많이 어려. 여자만 보면 엄만줄 알아서..

도도 : (제시를 격하게 껴안는다) 엄마 보구 싶었쎄!!!

양리 다급하게 도도를 떼어낸다. 도도를 껴해보지만 도도는 그런 양리를 무시한다.

도도 : (제시에게 달려들며) 엄마 엄마 안아쥬 안아쥬쎄요

제시 : 많이.. 어린가 봐요?

양리 : (도도를 정면에서 계속 막는다) 하하 어릴 때 머리를 다쳐서 방금처럼 오락가락하면서 울기도 하고 이상행동을 많이 보일때도 있고, 하하 우리 도도가 이제 잘시간이 되지 않았나?

도도 : 웁 시로시로 나눈 저 엄마랑 잘꺼야! 저 엄마랑!! 한! 침대서! 잘꺼야!!

도도와 양리는 서로 제시가 안보이는 데서 대치하며 서있다.

양리 : 도도야 저 누나는 형아꺼야 함부로 같이 자고 그러면 진짜 나쁜짓이야 알아?

도도 : 어찌지 형아 나는 어린애라서 그런거 하나도 모르고 저 엄마랑 잘꺼데?

양리 : 어찌지 동생아 나는 다 커서 널 때릴수도 있는데?

도도 : 어휴 어린 동생을 때려? 진짜 나쁜 형이네? (빈정대며) 엄마 형아가 나 때린대

양리 : 안닥쳐?

제시 : 그냥 내가 재우고 올게요

양리 : 절대 안돼!! 저자식이 무슨짓을 할줄 알고

제시 : 아니야 오빠 나 애기들 좋아하는거 알잖아요, 진짜 이걸 다들 내숭같다고 말해서 말 못했는데 난 결혼하면 된장찌개 끓여두고 애기랑 같이 남편 맞이하는게 꿈이었어요 아 이런거 말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다.

양리 : 제시야 나도 그런게 꿈이었는데.. 넌 어쩜 생각하는거 하나하나 이렇게 이쁘냐

도도 : (두 커플을 한심하게 보며) 응 엄마 그니까 자면서 아빠나 기다리자

양리 : (도도에게 소릴 지른다) 너 진짜 미쳤냐?!!

도도 잠시 양리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짓고는 울며 제시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눕는다

도도 : (아기처럼 운다) 우앵 저 아저씨가 나한테 소리질러줘

제시 : 오빠 애기는 사랑으로 감싸줘야죠!

도도 : (양리를 보고 빈정댄다) 네 저는 어립니다 어린이입니다.

제시 : (도도의 머리를 마지못해 쓰다듬는다) 그래 도도야, 형아가 소리질러서 많이 놀랐어요?

도도 :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팬티 손빨래 시키구여 음식물 쓰레기 안 내다놓구여.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불행해 질꼬예요.

양리 : 야!!

제시 : 아니야 오빠 저 애기들 좋아하는거 알잖아요 제가 달랠게요.. 도도야 밤 늦었는데 안자요?

도도 : (양리를 보며 비웃는다) (하품하며) 네 졸립니다 (음흉하게) 엄마가 재워줘야 합니다

제시 : 그래 누나랑 같이 코 자요 (도도 메롱)

양리 : 안돼!!!!

제시 : 괜찮아요 오빠 금방 재우고 나올게요.

도도는 능숙하게 제시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을 보인다. 양리가 제지한다.

양리 : 다..다큰애를 뭘 재워줘!!

도도 : (목소리를 중저음으로 깔며) 다 크지 않았습니까!!

이때 초인종이 울리며 흥에 겨운 에드몽이 나타난다.

에드몽 : 며늘아가! 잘지냈닝? 전에 보니까 집안이 너무 행한거 같아서 집안 데코좀 해주려고 왔징

양리와 도도는 서로 마주보며 당황한다.

도도 : 하.. 할아버지께 인사 드립니다.

에드몽 : 우리며느리는 애교도 많지. 하라부지예요?? 하라부지라니 호호 애 손주는 기대도 안해 아버님이라고 불러 호호 근데.. (짜려본다) 이 아가씨 누구?

제시 : 누구시지..? 며느리? 아버님? 저.. 누구세요?

양리와 도도 서로 마주보다가 도도가 먼저 선수를 친다.

도도 : 저..저는 이상황이 싫습니다.. 풀립니다.. 자고 싶습니다..

양리 : 나도 졸리네.. 도도야 같이 잘까?

도도와 양리는 서로 자러 조용히 들어가려고 하자 에드몽은 음흉한 미소로 두 내외에게 손으로 인사를 한다. 하지만 제시의 손에 붙잡혀 무대 한가운데로 끌려나온다.

제시 : 저 아저씨는 누구시고, 도도가 왜 며느리라고 불리는 거고, 이게 다 무슨 얘기에요?

양리 : 그니까.. 도도는 정신이 많이 어리고..

에드몽 : 며느라, 지난번에 잡지 나온거 어디다 뒀니? 내가 우리 애기들 인터뷰 한걸 아무래도 액자로 걸어놔야 할 것 같아.

에드몽이 주위를 둘러보며 잡지를 찾자 도도는 당황하며 뛰어간다.

도도 : 아 예 아버님 제가 전에 새거 보내드렸는데

제시는 도도가 뛰어가서 에드몽을 보조하는 것을 보고는 다시 양리를 짜려본다.

제시 : 도도가, 많이 어리다?

양리 : 아니..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가끔은 제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고..

에드몽은 도도에게 귓속말로 제시를 가르키며 질문을 한다.

에드몽 : 근데, 저 아가씨는 원데 이 늦은시간에 와있는거야? 우리 애기들 자야되는데

도도 : 아, 저, 저랑 같이 공연하는 배운데 늦게 안내사항이 있다고 잠깐 왔어요

에드몽 : 그래? 그런걸 뭘 전화로 하지 밤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그래, 맘에 안들어

에드몽은 투덜대다가 다리를 꼬고 쇼파에 앉아 잡지를 정독하기 시작한다.

앙리 : 가정부야!

제시 : 가정부?

앙리 : 어, 가정분데 하하 남자 둘이 살다보니까 집안일이 좀 서툴러서, 잠깐 밤에만 오셔서 일 좀 도와주시고 뭐.. 주무시고 갈때도 있고

제시 : (약간 언짢은 듯) 가정부 쓰는거면 괜히 돈만 더 날리는거 아니에요? 오빠가 집안일좀 더 하면 되지 않나.. 근데 지금 그 가정부께서 쇼파 앉아서 게이잡지 읽고 계신거 같은데

앙리 : 그런말 하지 마, 좀.. 정신이 안좋으신 분이니까

제시 : 오빠 주변엔 다 정신 이상자 밖에 없어요? (찻찻한 듯) 오빠 좀 이상한 사람같아

앙리 : 아냐아냐 (제시를 붙잡는다) 진짜 정신이 좀 안좋으셔서 그래, 행동이 좀 저래 보이시거나 이상한 말 하실때도 있지만 집안일 하나는 다른 사람을 못 쓰겠더라니깐.(에드몽 부엌에서 물 마시려고 뒤적거리다가 물건들을 넘어뜨린다.)

제시 : 그럼 저도 도울게요 제 꿈이 현모양처잖아요 늘 남편에게 순종하고 참하고..

제시는 쇼파에 있는 곰인형을 들어다 쓰레기 통에 버리려 한다. 에드몽은 깜짝 놀라서 제시에게 곰인형을 빼앗아 소중히 안고는 다시 쇼파에 내려둔다. 에드몽은 제시를 찌려본다. 도도가 에드몽을 데려다 다시 쇼파에 앉힌다. 제시는 앙리에게 다가간다.

제시는 앙리에게, 에드몽은 도도에게 말을 건다.

제시 : 저 분 왜그러시는 거예요? 오빠 저 무서워요

앙리 : 많이 놀랐어? 괜찮아, 좀 결벽증 정도로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싫어하셔서 그래

제시 : 아니 저정돈 좀 심한거 아니에요? 쓰레기를 하나 못버리겠네

앙리 : 내가 방금 말했잖아, 그만큼 집안일 하나는 다른 사람 못쓴다니깐.

에드몽은 씩씩대며 곰인형을 쓰다듬는다.

에드몽 : 저 여자 미친거 아니니? 이 곰인형이 어떤건데 우리 앙리가 3살때부터...

도도 : (말을 끊으며) 연극적 요소예요 아버님, 무대위 소품을 이용해서 자신의 감정상태의 변화와 감정 몰입을 좀더 진지하게 해 나갈 수 있는거죠 지금 몰입 시작했나 봐요

에드몽 : 저 여자 이상해

제시 : 저 가정부 이상해

제시 : 그래, 뭐 가정부 애긴 그렇다 쳐도, 그럼 도도는 뭔데요? 지금 완전 정상 같은데..?

제시가 말하는 동안 에드몽은 가방에서 양리의 사진이라던가 추억이 될 물품들, 이상한 집기들을 꺼내어 집안 곳곳에 장식해 둔다. 제시는 이상한 물건을 보고 끔찍하게 여기며 에드몽의 뒤를 따른다.

제시 : 저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제시는 에드몽에게 따질 듯 다가간다.

양리 : 하지마!

제시 : 왜요! 오빠가 집주인인데, 이런 이상한 물건들 나열하는 거 보고도 그냥 둘 거예요?

에드몽은 무대를 한바퀴 돌며 하나하나 정리한다. 게이물건들 또한 내려둔다. 제시는 쓰레기통을 들고 에드몽의 뒤를 쫓으며 물건들을 다 쓰레기 통에 넣다가 에드몽과 눈이 마주친다.

에드몽 :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제시 : 제가 할말이거든요? 아저씨, 남에 집에 이런걸 두심 안돼죠!

에드몽 : 남의 집? 나암의 집? 이집이 왜 남의 집이야! 며느리랑 우리 아들 집이지!

제시 : 아무리 편해도 가족처럼 생각하시면 안되죠, 아저씬 엄연히 고용된 사람이시, 우리 공과 사는 구분하자구요

에드몽 : 고용과 사? 그래 말 잘했다 아가씨, 아가씨 지금 시간이 몇신데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이 난리야? 공적인 일이면 이런 사적인 시간엔 안와야 되는거 아냐?

제시 : 사적인 시간을 쓸만한 사람이니까 왔는데요? 내가 왜 이런애길 아저씨께 해드려야 하죠?

에드몽 : 사적인 시간을 쓸만한 사람? 미쳤어? 남의 부부네 와서 사적인 시간?

제시 : 곧 부부가 될꺼니까 그럴만한 거겠죠? 아저씨, 아저씨가 집안일 잘 하는건 알겠는데 이런 건 진짜 제 취향 아니거든요?

에드몽 : 니 취향이 지금 무슨 상관이야!

제시 : 곧 이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상관이 있죠!

에드몽 : 아가씨가 아무리 몰입했다고 해도 나랑은 상관 없거든? 이거 완전 미친 기지배 아냐

에드몽과 제시는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기 시작한다.

에드몽 : 먼저 놔 이년아!

제시 : 아저씨가 먼저 낚요!

에드몽 : 그럼 셋 세면 놓는거다

에드몽과 제시는 하나,둘,셋 하며 세지만 셋 하는순간 서로의 머리채를 더 세게 쥐어뜯는다.

양리와 도도는 당황하다가 그 둘을 떼어 둔다, 이때 초인종이 울린다.

노베르 : 야 아직 안자냐

제시, 에드몽 : 저건 또 뭐야!

양리와 도도는 다급하게 노베르를 끌고 현관으로 내쫓으려 하지만 노베르가 현관에 매달려서 계속해서 대사를 친다.

노베르 : 왜 아직 게이생활중이냐? 니네도 참 고생이다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도도는 노베르의 등짝을 때리며 노베르를 끄집어 내려 고생한다. 에드몽은 계속해서 집안 데코를 하려 하고 제시는 그것을 내려놓는등 신경전이 계속된다.

도도 : 미쳤냐? 술마셨음 곱게 들어가 자 왜 여기까지 와서 지랄이야

노베르 : 아 왜 좀 나 이제 갈데 없단말야, (양리에게) 양리야 나도 첩으로 받아줘 나도 갈데 없어

양리 :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 너 술깨고 얘기해

노베르 : 나중에 첩으로 받아주는거야? 근데 미안해 (오열)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됐어

노베르는 순결을 지키는 여자의 모습으로 가슴팍을 끌어안은뒤 청순하게 훌쩍인다.

제시 : 아저씨 해고야, 다신 고용안하니까 오늘부로 짐싸서 나가세요 지금까지 시급도 다 뱉어내요.

에드몽 : (빈정대며) 나도 당신같은 기지배랑 우리 도도랑 일 안시킬 거니까 다신 내눈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시급같은 소리하네 저건 뭘 연기하는거야?

제시 : 당신이 내 눈앞에 나타나질 말아야 하는거겠쥬

에드몽 : 너 이 기지배 진짜 눈앞에 나타나면 머리털 다 뽑아버린다.

에드몽이 제시에게 북감자를 먹이자 제시는 주먹을 쥔채 검지와 중지 사이로 엄지를 내보인다.

에드몽이 가운데 손가락을 든다. 제시는 열받는 듯이 손 부채질을 한다. 에드몽은 신경질 적으로

가지고 왔던 캐리어의 지퍼를 다시 잠근다.

앙리 : 첩이든 뭐든 일단 꺼져봐 여기 이런애기 할 상황이 아냐

노베르 : 나는 솔직히 30억만 줘도 암전하게 잘 할수 있을거 같은데.. 앙리야.. 나 오늘 이혼했어

앙리 : 어 축하해 알겠어 꺼져봐

에드몽은 그 사이 짐을 다 챙겨서 화난채로 캐리어를 끌고 나간다.

에드몽 : 아가! 나 간다! 저 미친년 집에는 다시 못들이게 하고, 소금뿌려라! 굶은소금으로!

도도 : (찹찹매며) 예..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에드몽이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노베르는 뼈뺏하게 인사를 하고 도도는 에드몽에게 작별 인사를, 앙리는 제시에게 다가가 달래는 것을 지켜보며 쇼파에 다가가 눕는다.

노베르 : 니네는 좋겠다! 결혼만 하면 300억 생겨서!

도도와 앙리와 제시는 동시에 노베르를 쳐다본다.

노베르 : 야 나는 이혼하는데 돈을 써야되는데 니네는 결혼하는 행세만 하고 300억이냐? (도도가 입을 틀어막는다) 진짜 세상 불공평하다.

도도 : (속삭인다) 닥쳐 제발 닥쳐줘 노베르야

노베르 : (신경질을 내며 도도의 손을 뿌리친다) 왜 막아! 내가 못할소리 했냐?

제시는 흥분한채로 머리카락을 마구 헝크린다.

제시 : 300억? 내가 또 모르는 돈 있어요? 저사람이 한 말 대체 뭔데!

앙리 : 재도 정신이... 좀 안좋은 애야..

제시 : 아악!(비명을 지른다) 닥쳐!, (도도와 노베르를 가르키며) 너! 그리고 너! 대체 뭐하는 자식들인데 와가지고 다 지랄들이야!

도도 : 어머니 진정 하시죠

제시 : 니가 제일 병신이야!

도도는 상처받아 노베르 근처에 쪼그리고 앉는다. 노베르는 그런 도도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폭

주하는 제시를 앙리가 끌어안고 진정시킨다.

앙리 : 내가 다 설명할게 제시야 내가 다 잘못했어

제시 : 바로 설명하지 않으면, 오빠랑 끝이야

앙리 : 응 알겠어 내가 다 잘못했어

앙리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도도는 깜짝 놀라 앙리의 어깨를 잡고 물러선다.

도도 : 너 미쳤어? 무사히 1년의 결혼생활인거 기억 안나?

앙리 : 300억이든 뭐든 상관없어, 내 사람한테 이제 거짓말 하는것도 지쳐

도도 : 아니 니가 상관없다 해도, 노베르랑 나는 병신 취급하냐? 지금동안 한건 어떡할건데?

앙리 : 내가 다 잘못했어, 니네한테 진짜 너무 미안하다. 근데 나, 이젠 진짜 거짓말 하기 싫어, 더 이상 거짓말로 앞에 일 덮는거 못해먹겠어.

앙리와 도도가 떠드는 사이 노베르는 제시를 보며 폭로한다.

노베르 : 저 새끼들 결혼했잖아요

제시 : 네?

노베르 : 1년간만 결혼하면, 300억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혼한거예요

도도 : (말을 끊으며) 결혼이 말이 결혼이지 아니예요 저희 이혼할꺼예요, 신고도 안했고 그냥 1년만 감시원 피하면 되요. 저희 딱 1년만 마지못해 사는거지 제수씨.. 아니 이제 곧 제수씨 되실 수 있어요 1년뒤에 무조건 이혼할꺼예요

노베르 : 아니요? 어차피 그쪽 앙리 돈보고 온거 아니예요? 다음 결혼은 나랑 할꺼니까 꿈 깨시죠

제시는 놀라 공황상태에 빠지고 앙리는 놀랐지만 제시에게 다가가 무릎꿇는다.

앙리 : 제시야.. 많이.. 놀랐어?

제시 : 이게 사실이에요?

앙리 : 미안해..

제시 : (헛웃음 지으며) 1년간 결혼하면 300억이라고?

앙리 : (같이 헛웃음 지으며) 이해해 줄수 있어?

제시는 아무말 없이 앙리를 바라보다 앙리의 뺨을 때리고 그대로 현관으로 뛰쳐나간다.

노베르 : 잘 됐네

도도 : (노베르의 먹살을 잡으며) 그딴식으로 말하면 어떡하냐!

노베르 : 괜챦아 앙리 마누라는 여기 있잖아

앙리 : 제시는 없잖아..

노베르 : 지랄하네 니 마누라는 도도야

앙리 : 제시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엉? 그 착한애가 얼마나 상처받았겠냐고!

노베르 : 형아가 여자 믿는거 아니랬다, 왜 넌 나 보고도 배우는게 없니

앙리 : 너 입조심해! 제시는 다른 여자랑은 다르다고!

노베르 : 저여자가 뭔데 그래, 어차피 300억보단 가치 없을 여자에 아냐? 그동안 실컷 여자 만
나놓고는 왜 넌 지금 와서 착한 척을 해?

앙리는 노베르의 먹살을 잡을 듯 다가가고 도도는 그 사이를 말린다.

앙리 : 너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나

노베르 : 왜 내가 틀린 소리했냐? 어차피 재도 한번 즐기고 버릴애 아니었어? 왜 착한척 하냐고

도도 : 야 그만해 뭐하는 짓이야 우리끼리 싸워서 어찌려고

노베르 : 너 진짜 웃긴다, 다른 여자 갖고 놀 때는 실컷 쿨한 척하더니 너 싫다고 떠나는 여자
보니까 아깝냐?

앙리 : 입 안 다물어?

앙리는 노베르의 먹살을 쥐고 흔든다.

노베르 : 미친새끼.. 여잔 어차피 돈만본다고, 돈 들고도 꺼졌으면 잘된거지 왜 나한테 착한척을
해? 왜 300억땀에 게이노릇 할땐 언제고 순정남인척을 해

앙리 : 제시는.. 그런 여자 아냐

노베르 : 어휴 또 호구하나 납셨네, 너 그러다 내꼴 나, 엉? 통장 하나없이 평생 살게 된다고

앙리 : 씨발! 그럼 사랑하는데 어찌라고!

노베르 : 지금 사랑이 중요한게 아니라니깐! 저 여잔 어차피 니 돈만 생각할거라고!

앙리 : 돈이 아니라 내가 결혼했단거에 충격먹은거라고!

노베르 : 정국찔리니까 쪽팔려서 니 뺨때리고 튕거지 저게 뭐 충격받은거냐!

앙리는 현관으로 뛰쳐나간다.

도도 : 아 씨발! 나도 몰라, 좀만 참으면 300억인데 그걸 말하면 어떡하냐.

노베르 : 됐어, 저 병신이랑 사느니 너도 이혼해

도도 : (등짝을 때리며) 니땀에 다 망한채로 이혼하는거 아냐

도도는 한숨을 쉬며 현관으로 나가다 다시 들어온 제시, 앙리와 마주친다.

제시 : 도도씨

도도 : 네?

제시 : 정말, 1년 뒤에 이혼해 주시는거죠?

도도, 앙리 : 그럼요!

노베르의 비웃는 얼굴 도도,앙리,제시는 환호하며 껴안는다.